

'98전자산업경기전망세미나 개최

본회에서는 최근의 전자산업동향 분석 및 '98년도 경기전망을 업계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와 함께 집중 조명하여 기업의 경영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업계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전자산업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바 관심있는 많은 업체들의 참여 바랍니다.

1. 개최일시 : '97. 12. 3(수), 07:30~10:30
2. 장소 : 서울 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 볼룸)
3. 참석대상 : 전자업계 대표 및 경영 기획 담당 임직원, 관계기관 인사 등 200여명
4. 세미나 진행순서
 - 조찬(07:30~08:00)
 - 인사말씀
 - 본회 부회장
 - 주제발표(08:00~10:30)
 - * 주제별 발표시간 : 각각 20분씩
 - 전자산업의 최근동향과 '98년 전망 (본회 박재인 상무)
 - '98년 가전산업 전망 (대우전자(주) 주영섭 이사)
 - '98년 컴퓨터산업 전망 (삼보컴퓨터(주) 정철 부사장)
 - '98년 통신산업 전망 (대우통신(주) 김수영 상무)
 - '98년 반도체산업 전망 (LG반도체(주) 김양규 이사)
 - '98년 전자부품산업 전망 (삼성전기(주) 조경수 이사)
5. 접수마감 : 1997. 11. 28
6. 문의처 : 본회 기획과(553-0941/7)

제23회 전국품질경영대회

품질경영증양추진본부인 한국 표준협회에서는 한 해 동안 전 산업의 품질경영 활동 성과를 총결산하고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다짐하고자 매년 11월 「품질의 달」에 『전국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11월 『품질의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품질경영 활동에 앞장서 온 숨은 공로자와 우수업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생산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경영자와 관리자, 현장근로자 등 전 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품질제일, 고객지향의 품질경영 실천 의지를 굳게 다지고, 품질경영 확산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품질경영을 전 산업에 확산, 신경계 건설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급변 행사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계의 『경제살리기 운동』과 연계하여 범산업적 품질혁신활동을 전개 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로 삼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사 계획

- 일시 : 1997. 11. 4(화) 11:00~12: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 참석인원 : 4,000명
 - 초청인사(정보, 국회, 경제단체, 학계) : 100명
 - 수상자 : 500명
 - 근로자 및 기업인 : 3,000명
 - 기타(수상자 가족, 기자, 진행요원 등) : 400명
- 주요 내용
 - 경과보고(통상산업부 장관)
 - 대회사(한국표준협회장)
 -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VIP)
 - 치사(VIP)

- 품질경영 실천 결의문 채택(근로자 및 경영자 대표)

○ 부대 행사

행 사 명	개최시기	장 소
제15회 품질경영 심포지움	11.14(금)	한국표준협회 강의장
제3회 품질경영 연구 논문 공모 시상식	11.21(금)	"
제7회 신뢰성·보전성 심포지움	12. 5(금)	"

수출보험제도 안내

한국수출보험 공사는 WTO체제하에서 유일하게 정부지원수단으로서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출보험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정부기관으로서 동 제도를 통해 업체들의 수출증대 및 해외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수출보험제도

수출계약 체결후 수출이 불가능 하게되거나 수출한 후 수출대금이 미회수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자, 생산자, 해외투자자 및 금융 기관을 위하여 8개 보험종목과 1개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되는 손실보상

- 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거래
- 보험금액 : 수출금액의 90% (중소기업은 95%)

수출어음보험

외국환은행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 화환어음

을 매입한 경우에 그 화환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금액 보상

- 대상거래 : 화환어음이 발행되는 수출거래
- 보험금액 : 어음금액의 90% (중소기업은 95%)

수출신용보증

외국환은행이 수출과 관련하여 중소수출자에게 선전적 무역금융을 제공하거나 선적후 NEGO할 경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수출자를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대상거래 : 일반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 보증금액 : 대출금액 100% (선적전일 경우 약정이자 포함)

기타보험종목

- 시장개척보험 : 해외전시장 참가 등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를 회수하지 못한 손실 보상
- 농수산물수출보험 : 농수산물수출(가격상승위험 포함)로 인한 손실 보상
- 중장기수출보험 : 자본재, 산업설비 등 결제기간 2년 초과외 상품수출로 입은 손실 보상
- 수출보증보험 : 금융기관이 수출보증을 한 후 입은 손실보상
- 해외투자보험 : 해외투자후 전쟁, 환거래 제한 등으로 입은 손실보상
- 해외공사보험 : 해외공사의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공여된 장비의 권리박탈에 의한 손실 보상

○ 문의 : 399-6572, 6592

신기술 창업지원 확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앞으로 신기술 분야 중심의 창업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교수·연구원·전문기술자 등 연구개발자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생기원은 이를 위해 내년 신기술 보육사업(TBI) 예산을 80억원으로 확대 책정하고 창업지원 대상기업도 50여개사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 창업 자금만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사무실 제공, 장비지원, 기술 및 경영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 내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생기원으로부터 신기술 창업지원 대상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앞으로 과제별로 1억~2억원의 창업자금을 2년간 무담보, 무이자 조건으로 지원받는 한편 PC·복사기·팩스 등이 완비된 사업실도 1년동안 평당 2만원 정도 수준에서 임대해 쓸 수 있게 된다.

신기술 창업기업은 또 시제품 제작·시험검사·경영·사업화 등에 대해서도 생기원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화 가능성이 확인되면 생기원과 업무협력 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개발

투자금융, 대우창업투자 등으로 부터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생기원은 지난 9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이 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 12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능인력 채용에 관한 협조 의뢰

서울특별시립 청소년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졸업자를 대상으로 정밀기계 공과등 11개 직종에 대하여 1년간 전액서울시비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매년 680여명의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 각 기업체 등에 진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98년도 2월에 배출예정인 기능인력이 다수 취업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67번지 1호

청소년 직업전문학교

생활지도 담당관 윤재상 ☎696-8134

